

## 청년도약계좌에 255만4000명 가입...내년 청년미래적금 출시

등록 2025.12.31 10:02:03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청년도약계좌가 약 2년 반의 운영 기간 총 255만4000명의 가입자를 모집했다.

31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6월 청년도약계좌 운영 개시 후 총 374만1000명이 가입을 신청했으며 이 중 255만 4000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올해 신규 가입이 종료되지만 12월 가입 기간까지 계좌를 개설한 청년의 경우 가입일로부터 만기 시까지 5년간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청년층의 종잣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금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은 내년 6월 경 출시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의 기존 가입자에게도 상품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도약계좌와 미래적금 간 연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연 서금원 원장은 "올해 신규 가입은 종료되지만 이미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들이 만기까지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간 연계를 통해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금융이 실질적인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